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의 구조관계: 성별 및 학교급별의 다집단분석

Structural Correlations of Psychological Anxiety, Appearance-oriented Attitude, Self-esteem and Behavioral Problems: Multi-group Analysis in Gender and Grade Level

박선태*, 임성옥**

성덕대학교 사회복지계열*,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eon-Tae Park(mapst@sdac.ac.kr)*, Sung-Ok Lim(solim@uu.ac.kr)**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 자아존중감과 이들의 문제행동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이 구조적 관계가 성별, 학교 급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NYPI 횡단조사 중 2013년 ‘청소년 문제행동 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심리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약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지향태도가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은 강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의 수준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정적 매개효과를, 외모지향적 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적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의 영향력 크기는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와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심리적 불안감 | 외모지향태도 |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find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anxiety, appearance-oriented attitude, and self-esteem of youth and investigates how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show by genders and different school classes. For the investigation, a collected data for the research of ‘adolescent’s misbehaviors and tendency of their young average age and political subject’ were used from SPSS 22.0 program and AMOS 22 statistical program provided by Korea youth and children’s data archive. First of all, the research determines as the psychological anxiety gets higher, youth have lower self-esteem level and more behavior problems. In addition, when adolescents show stronger appearance-oriented attitude they have higher self-esteem level and more behavior problem. The study also indicates that as youths have higher self-esteem their behavior problem levels are reduced. Secondly,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of youth’s psychological anxiety and appearance-oriented attitude based on their self-esteem, the self-esteem gives a positive mediated effect on psychological anxiety and behavior problem whereas the self-esteem affects as negative mediated effect on the appearance-oriented attitude and behavior problem. Lastly, the study indicates there is a causal interaction between youth’s appearance-oriented attitude and behavior problem which differs by genders and different school clas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were suggested to prevent and relax the adolescent’s behavior problems.

■ keyword : | Psychological Anxiety | Appearance-oriented Attitude | Self-esteem | Behavior Problem |

접수일자 : 2016년 12월 27일

수정일자 : 2017년 01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1월 26일

교신저자 : 임성옥, e-mail : solim@uu.ac.kr

I. 서론

청소년기는 감정과 정서의 기복이 심하고 다원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 과격하고 격렬한 행동을 표출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의 집단과는 독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청소년기의 내적인 변화와 아울러 외적인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혼란하고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상태로 우울과 불안,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은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2], 청소년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3], 이들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4]가 2013년 9월 초등학교 1, 4학년층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즉시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30,685명(3.4%)이며, 관심군학생 중에서도 심각한 우울이나 자살생각 등 고위험군으로 ‘우선조치’가 필요한 학생이 6,529명(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4]에 따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 최초 발생연령이 점점 하향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최초 학교폭력 피해연령은 11.4세, 최초 가출연령은 13.6세, 최초 성관계 경험 연령은 14.6세, 흡입제 최초 경험연령은 11.3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경험도 최초 경험비율은 중학교 1학년생이 가장 많고, 온라인 사행성게임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최초 경험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행동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저연령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5].

이러한 관심에 따라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주로 중·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의 연구였으며[6-8], 부모와 가족 요인을 고려한 연구[9-11], 친구와의 요인을 고려한 연구[12-14], 학교요인에 관한 연구[15-17] 등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과 사회·환경

요인이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중 심리적 불안감과 자아존중감, 외모지향태도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심리적 불안감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18-20],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과잉행동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 두려움과 걱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성별에 따라 영향을 준다는 연구[9]와,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21]의 결과를 언급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에 따라 문제행동의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22]와 문제행동은 연령과 관계가 없다고 한 연구[23][24] 역시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공격성 및 폭력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25], 낮은 자아존중감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고 문제행동의 결과로도 나타난 연구[26]가 있다.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외현화 행동, 스트레스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27][28]도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외모에 민감하고 외모가 자아개념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지각을 외모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자기의 외모가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체이미지에 집착할 수 있다[29]. 따라서 청소년기에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지각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자기지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과 감정의 기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정신상의 조화가 결여되어 혼란 및 심각한 갈등으로 위기상황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30]. 또한 외모에 결함이 있다고 과잉지각하고 집착하는 등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31]. 그리고 외모를 중시하는 오늘날 사회·환경적인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등 정신건강의 위해요소로 작용함은 이미 선행연구[32]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 외모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 문제

행동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위 변인들 간 단편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중·고등학교 연령대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않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그 구조관계를 규명하여 문제행동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가 성별 집단 및 학교급별 집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과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동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이 있다. 청소년 비행은 성인의 범죄와 구분이 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15], 사회학에서는 일탈이라는 용어가 청소년에게 사용될 때는 문제행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33].

Kauffman[34]은 이러한 문제행동은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였을 때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 될 수 있는 형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행동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한 홍경재[35]는 아동이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생활하며 성장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동적, 정서적 장애나 부적응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은희[36]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이 사회

적 규범이나 기대에서 벗어난 것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하였고, 김진화 외[37]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벗어난 반사회적인 범죄나 일탈행위, 청소년의 여러 부적응 행위의 산물로서 문제행동을 정의하였으며, 문제행동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가정,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해보면,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가정과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대 또는 규범에서 벗어난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인 부적응 행동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Moore[38]는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낮은 협동심과 의심이 많고, 파괴적이며, 방어적이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적대적 충동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현재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내고 있다. 즉, 청소년의 공격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39-41] 우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2][43], 청소년 스트레스도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44][45].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심리학적 관점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논의할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또래 및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범과 한계를 벗어난 행동적·정서적·심리적 부적응행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불안의 개념은 Freud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불안을 인간 유기체의 정지 상태 또는 조건으로 느껴지는 그 무엇이라고 규정하였으며[46], Spielberg[47]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상태불안과 성격의 영속적인 모습으로서의 불안을 특성불안으로 분류하였다. 상태불안은 불쾌한 정서적 반응이 초래되는 부적응 상태[48]로 우려와 긴장으로 인식하는 즉각적인 정서적인 태도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49]. 반면에 특성불안은 개인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는 불안으로 개인차를 가진 동거나 획득된 행동성향으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무섭게 인식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특성불안은

개인이 태어나면서 가진 성격적 특성으로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안한 느낌을 말한다. 불안감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 행동적응, 심리적·정서적 적응 등으로 연구·측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 중 하나인 불안은 우울과 함께 심리적 적응상태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불안감은 청소년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근심, 걱정, 우려, 긴장의 감정 등의 부정적 정서라고 정의한다.

3. 청소년의 외모지향태도

외모는 사람의 성별, 인종, 나이 등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원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50]. 현대 사회에서 대중의 관심은 외모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체외모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외모의 기준은 시대와 사회적 영향으로 변하게 되며, 외모만족도 또한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외모지향태도를 신체만족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신체만족도란 신체의 전체나 각 부분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한 만족감 정도, 개인의 감정을 측정할 것이라 정의하였다[51]. 신체만족도는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만족도가 실제 신체측정치보다는 각 신체부위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더 관련됨을 의미한다[52]. TV 등의 미디어는 외모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가속화시키며,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미를 비교하게 되며, 이상적인 기준과 실제의 자신과의 불일치 외모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 가치와 외모만족은 감소하게 된다[53].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주변 환경은 청소년의 신경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성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인지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지향태도는 신체적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며 외모를 유지하고 발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정의한다.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서 자아개념이 인지적 측면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감정적 측면이라고 하였다[54].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 심리적 갈등 및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사회적 역할 변화 및 새로운 자아정체감의 정립이 요구되며, 자아존중감의 성취는 아동기와 청소년 발달의 중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발달과정에 매우 중요하며 정옥분[54]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자아존중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 원인을 이해하고, 그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드러낼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둘째, 사회적 인정과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대나 방임 경험이 있거나 가정 내 갈등이 많았던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들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셋째, 성취행위 역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있어 성취행위가 강조되는 것은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에서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유사하다. 종합해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급속히 이루어지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로 자신이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로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게 여기는 총체적인 정도로 정의한다.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주요변인 간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5. 선행연구의 고찰

5.1 심리적 불안감과 자아존중감,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기의 불안은 사회적 기술발달을 방해하고 부

적응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며, 다른 문제행동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불안을 지닌 청소년은 친구가 적고 불안이 내재화된 행동을 보였으며[55]. 불안감이 높으면 쉽게 짜증을 내고 좌절하거나 심리적 불편감을 잘 참지 못하여 돌발적인 행동과 적대적 태도를 나타내어 친구관계에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56].

이러한 시기에서의 불안감은 청소년기의 비행문제와 관련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57-59].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약 50%가 우울이나 불안의 내재화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으며[18],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에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품행장애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60][61]. 그리고 폭력적인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불안감을 보인다고 하면서 높은 불안상태가 괴롭힘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19]. 반면에 청소년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이나 품행문제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이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 보호요인이 되어 폭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20], 폭력 가해자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거나 평균에 가까운 불안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불안감을 보이는 청소년 모두가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분노-유발 상황에서도 무관심한 듯 반응하고 분노와 공격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62]. 또한 심리적 불안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Rogenberg도 이혼, 별거 가정아동들이 일반가정아동들보다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자아개념이 낮다는 사실을 보고 하였다[63]. 김효식(1996)은 심리적 불안을 자아가 위협받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였고, 윤공화(1997)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이 정서면에서도 높은 효과가 있어 지적인 면에까지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64].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단순 상관관계로 살펴 본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5.2 외모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기는 자의식이 높아지는 시기로 급속히 진행

되는 신체적 변화와 맞물려 신체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의 발달속도가 정상범주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타인을 관찰하고 비교, 평가하는 시기이다[54]. 청소년기의 경우 타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행동 및 태도를 취하게 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하며 심리적인 위축과 소극적인 성격 및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65].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에 외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지각을 가지게 된다. 이는 또래집단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 부적응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적 결함이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부적절한 섭식행동과 성형수술을 시도하게 하는 등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시킨다[66].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혼란과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았다[65]. 또한 외모로 인한 친구들의 무시나 거부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자기비하와 자기멸시,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심해지면 우울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67].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정서적 우울과 생리적 우울 둘 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68], 청소년기에 신체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외모로 인해 또래집단에서 무반응과 거부를 경험하면 자기비하나 자기멸시를 유발하고 효능감의 저하를 가져온다. 심한 경우 피로감과 의욕상실, 무기력감에 시달리다 우울로 발전하여 정신적인 위협을 경험하기도 한다[67]. 또한 자신의 외모가 또래 집단과 유사하거나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보다 자아개념의 수준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며,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정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68].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에서의 성취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과 또래집단에서의 인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69].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우울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Cash & Winstead[70]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으며, 남녀 대학생의 외모불만족과 우울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연구에서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 가운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실제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연구에서 여자의 신체만족도가 남자보다 매우 낮았다[71]. 한편 여자 뿐 아니라 남자에게서도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스트레스, 회피, 우울, 이상행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도 외모로 인한 비판이 심할 경우 자살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2].

또한 외모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73][74]에서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이 자아존중감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고, Felker는 개인의 신체적 외모는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개인의 신체 및 신체적 능력이 그 사회의 정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아개념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75]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청소년기의 외모만족도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며, 또한 외모만족도와 자아정체감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76].

이상의 결과들은 청소년기 외모는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지각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여러 부정적인 경험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외모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에 대한 불만이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져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5.3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른 발달단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4].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무력감과 우울증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77].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거

부적인 느낌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탈적인 비행 행동을 선택한다고 하였다[78].

또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및 외현화 행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줄어들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높아진다고 하였다[28]. 그리고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더라도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트레스 경험을 많이 하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27]. 이렇게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25].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불안감 및 외모지향태도와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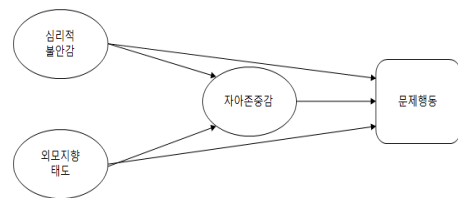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NYPI 횡단조사 중 2013년 조사로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79]의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2013년 6월 8월에 조사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6학년과 중학생 1학년~3학년을 지역, 학교급별,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한 변형비례

배분방식의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표집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6,359명(초등학생 3,164명, 중학생 3,195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학교급, 학교형태, 연령, 학년, 지역규모, 행정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6,228)

변인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변인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학생	3,185	51.1	학년	초등4학년	1,032	16.6
	여학생	3,043	48.9		초등5학년	1,012	16.2
학교급	초등학생	3,081	49.5		초등6학년	1,037	16.7
	중학생	3,147	50.5		중1학년	1,043	16.7
학교형태	남녀공학	5,225	83.9		중2학년	1,070	17.2
	남학교	536	8.6		중3학년	1,034	16.6
	여학교	467	7.5	대도시	2,498	40.1	
	11세이하	1,166	18.7	중소도시	2,935	47.1	
연령	12세	1,085	17.4	읍면지역	795	12.8	
	13세	1,035	16.6	서울인천경기	3,208	51.5	
	14세	1,005	16.1	경상지역	1,593	25.6	
	15세	1,055	16.9	전라지역	663	10.6	
	16세	869	14.0	충청지역	595	9.6	
	무응답	13	-	강원지역	169	2.7	
	Min=9, Max=16, Mean=13.35, S.D=1.74			전체	6,228	100.0	

3. 측정변수

3.1 측정변수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부모와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에서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적·정서적·심리적·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리커트식(Likert scale)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5$ 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심리적 불안감은 청소년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근심, 걱정, 우려, 긴장의 감정 등의 부정적 정서라고 정의한다. 심리적 불안감의 측정은 총 10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불안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9$ 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외모지향태도는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며 외모를 유지하고 발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정의한다. 외모지향태도의 측정은 총 10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Likert scale)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지향태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7$ 로 매우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 긍정적 평가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Likert scale)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6$ 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 및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과 AMOS 2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에 대한 문항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변수들에 대해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종속변수인 문제행동과 독립변수인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 및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를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문제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학급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랩 절차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변인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제 변인인 외모지향태도,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 문제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와 뽀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외모지향태도, 심리적 불안감, 문제행동은 중앙값 3점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은 중앙값 3점을 웃도는 수준인 평균 3.49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2. 연구변인의 기술 통계량

변 인	빈도 (명)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심리적 불안감	6,228	1.00	5.00	2.22	0.91	.486	-.462
외모지향 태도	6,228	1.00	5.00	2.37	0.88	.225	-.487
자아존중감	6,228	1.00	5.00	3.49	0.86	-.215	.084
문제행동	6,228	1.00	5.00	1.68	0.63	.945	.928

2. 연구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변인인 외모지향태도,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간의 관계적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외모지향태도와 심리적 불안감의 상관계수가 $r = .55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70이상의 관계를 보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변인의 상관관계(n = 6,228)

변인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	자아 존중감	문제행동
심리적 불안감	1			
외모지향태도	.522***	1		
자아존중감	-.272***	-.122***	1	
문제행동	.447***	.439***	-.181***	1

*** $p < .001$

3. 청소년의 문제행동 영향요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 = 146, n = 6,359) = 1673.458, p = .000, CFI = .971, NFI = .969, TLI = .963, RMSEA = .041$ 로 나타나 카이제곱 통계량 (χ^2 statistic)은 1673.458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지만 χ^2 통계량은 수치가 클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badness of fit'으로 불리기도 하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며, 이에 따라 χ^2 값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나더라도 ($p < .05$) 반드시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지표들과 함께 적합도를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이제곱 통계량(χ^2 statistic)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지수는 모두 판단 기준을 충족시켜 적합한 모형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모형을 토대로 구성된 잠재변수간의 5개의 경로를 보면, 외생변수인 심리적 불안감에서 내생변수인 자아존중감($\beta = -.334,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력을 보였고, 내생변수(중속변수) 문제행동($\beta = .333,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독립변수)인 외모지향태도에서 내생변수인 자아존중감($\beta = .077,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력을 보였고, 내생변수(중속변수) 문제행동($\beta = .321,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변수인 자아존중감에서 내생변수(중속변수)인 문제행동($\beta = -.071,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5개의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로 분석되었다. 즉 심리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약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지향태도가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은 강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의 수준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가설적 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C.R	p
심리적 불안감 → 자아존중감	-.431	.025	-.334	-17.245	.000
→ 문제행동	.331	.020	.333	16.555	.000
외모지향태도 → 자아존중감	.069	.016	.077	4.283	.000
→ 문제행동	.223	.013	.321	17.377	.000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055	.011	-.071	-5.110	.000

χ^2 (df = 146, n = 6,359) = 1673.458, p = .000, CFI = .971, NFI = .969, TLI = .963, RMSEA = .041

SMC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088	.361

회귀분석의 설명력인 R²에 해당하는 특정 내생 변수의 분산이 선행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중상관자승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값을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선행변수인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에 의해 분산의 8.8%가 설명되고, 문제행동은 선행변수들에 의해 분산의 36.1%가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모형에서 유의한 경로로 확인된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효과 분해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3개의 직접경로와 자아존중감을 통한 2개의 간접경로로 모두 5개의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매개효과 크기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이르는 경로계수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이르는 경로계수를 곱하여 구하였다. 심리적 불안감이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총효과는 $\beta = .357$ 로 직접효과는 $\beta = .333$ 이고,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beta = .024$ 였으며, 외모지향태도가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총효과는 $\beta = .316$ 로 직접효과는 $\beta = .321$ 이고,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beta = -.005$ 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서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직접효과($\beta = -.055$)만 구성되어 있다.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 분석을 한 결과, 심리적 불안감을 통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 신뢰구간은 .015에서 .03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지향태도

를 통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 신뢰구간은 -.006에서 -.00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효과를,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는 부(-)적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가설적 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문제행동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심리적 불안감 → 문제행동	.331 (.333)***	.024(.024)**	.355 (.357)
심리적 불안감 →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024(.024)**	
간접효과(-.334 × -.071) =	.024 / 신뢰구간(.015 ~ .032)		
외모지향태도 → 문제행동	.223 (.321)***	-.004(-.005)**	.219 (.316)
외모지향태도 →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004(-.005)**	
간접효과(.077 × -.071) =	-.005 / 신뢰구간(-.006 ~ -.002)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055 (-.071)***		-.055(-.071)***

*p < .05, **p < .01, ***p < .001 추정치: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4. 다중집단 분석

4.1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영향요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차이검증

Model	χ^2	df	CFI	NFI	TLI	RMSEA	$\Delta\chi^2$	p
비제약모형	1837.737	292	.970	.965	.965	.029	-	-
등가제약모형	1851.349	297	.970	.964	.965	.029	13.612	.018
심리적 불안감 → 자아존중감	1842.247	293	.970	.965	.965	.029	4.510	.034
→ 문제행동	1841.580	293	.970	.965	.965	.029	3.843	.050
외모지향태도 → 자아존중감	1842.936	293	.970	.965	.965	.029	5.199	.023
→ 문제행동	1835.947	293	.970	.965	.965	.029	-1.790	.271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1838.651	293	.970	.965	.965	.029	0.914	.339

비제약모델의 적합지수는 $\chi^2 = 1837.737$, $df = 292$, $p = .000$, $CFI = .970$, $NFI = .965$, $TLI = .965$, $RMSEA = .029$ 로 나타났고, 성별 간에 심리적 불안감에서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 자아존중감에서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같다고 가정한 등가제약 모형의 적합지수는 $\chi^2 = 1851.349$, $df = 297$, $p = .000$, $CFI = .970$, $NFI = .964$, $TLI = .965$, $RMSEA = .029$ 로 나타나 카이제곱 값 차이 검증에서 $\Delta\chi^2(5) = 13.612$, $p = .018$ 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불안감에서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가 $\Delta\chi^2(1) = 4.510$, $p = .034$ 가 $p < .05$ 수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심리적 불안감에서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도 $\Delta\chi^2(1) = 3.843$, $p = .050$ 으로 $p < .05$ 수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도 $\Delta\chi^2(1) = 5.199$, $p = .023$ 으로 $p < .05$ 수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남학생				여학생			
	B	β	S.E	C.R	B	β	S.E	C.R
심리적 불안감 → 자아존중감	-.314	-.328	.025	-12.732***	-.247	-.339	.020	-12.427***
→ 문제행동	.304	.372	.022	14.078***	.246	.343	.020	12.265***
외모지향태도 → 자아존중감	.116	.091	.030	3.848***	.026	.026	.025	1.02.6
→ 문제행동	.374	.345	.027	13.918***	.332	.338	.027	12.513***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042	-.049	.016	-2.625**	-.067	-.068	.020	-3.356***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차이를 [표 7]에서 살펴보면, 심리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beta = -.339$)이 남학생($\beta = -.3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p < .05$), 심리적 불안감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beta = .372$)이 여학생($\beta = .343$)에 비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

($\beta = .091$)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여학생($\beta = .02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지향태도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beta = .345$)과 여학생($\beta = .338$)에 따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고, 자아존중감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남학생($\beta = -.049$)과 여학생($\beta = -.068$)에 따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경로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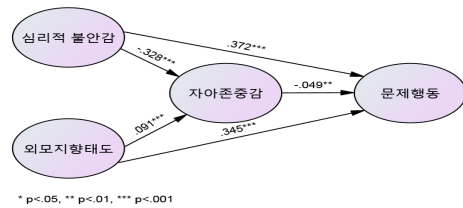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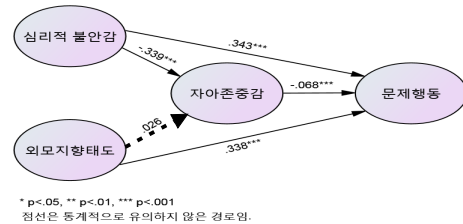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결과

한편 유의한 경로로 확인된 남학생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여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 먼저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남학생($\beta = .016$)은 $p < .05$ 수준에서, 여학생($\beta = .023$)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남학생($\beta = -.005$)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효과를 보였지만 여학생($\beta = -.002$)의 경우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별에 다중집단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남학생			여학생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심리적 불안감 → 문제행동	.372**	.016*	.388**	.343	.023**	.366**
심리적 불안감 →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	.016*	-	-	.023**	-
95% bootstrap C.I.	(.005 ~ .027)			(.012 ~ .036)		
외모지향태도 → 문제행동	.345**	-.005*	.341**	.338**	-.002	.336**
외모지향태도 →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	-.005*	-	-	-.002	-
95% bootstrap C.I.	(-.008 ~ -.001)			(-.006 ~ .001)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049*	-	-.049*	-.068**	-	-.068**

* p < .05, ** p < .01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임

4.2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영향요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차이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비제약모델의 적합지수는 $\chi^2 = 1884.234$, $df = 292$, $p = .000$, $CFI = .967$, $NFI = .962$, $TLI = .962$, $RMSEA = .030$ 으로 나타났고, 학교급 간에 심리적 불안감에서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같다고 가정한 등가제약모형의 적합지수는 $\chi^2 = 1941.692$, $df = 297$, $p = .000$, $CFI = .966$, $NFI = .960$, $TLI = .961$, $RMSEA = .030$ 으로 나타나 카이제곱 값 차이 검증에서 $\Delta\chi^2(5) = 57.458$, $p = .000$ 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불안감에서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는 $\Delta\chi^2(1) = 0.498$, $p = .481$ 로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심리적 불안감에서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Delta\chi^2(1) = 16.699$, $p = .000$ 로 $p < .001$ 수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는 $\Delta\chi^2(1) = 10.879$, $p = .001$ 로 $p < .001$ 수준에서, 외모지

향태도에서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Delta\chi^2(1) = 7.674$, $p = .006$ 으로 $p < .01$ 수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Delta\chi^2(1) = 9.457$, $p = .002$ 로 $p < .01$ 수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9. 학교급에 따른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차이검증

Model	χ^2	df	CFI	NFI	TLI	RMS EA	$\Delta\chi^2$	p
비제약모델	1884.234	292	.967	.962	.962	.030	-	-
등가제약모델	1941.692	297	.966	.960	.961	.030	57.458	.000
심리적 불안감 → 자아존중감	1884.732	293	.967	.962	.962	.030	0.498	.481
→ 문제행동	1900.933	293	.967	.961	.961	.030	16.699	.000
외모지향태도 → 자아존중감	1895.113	293	.967	.961	.962	.030	10.879	.001
→ 문제행동	1891.908	293	.967	.961	.962	.030	7.674	.006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1893.691	.293	.967	.961	.962	.030	9.457	.002

표 10. 학교급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초등학생				중학생			
	B	β	S.E	C.R	B	β	S.E	C.R
심리적 불안감 → 자아존중감	-.287	-.309	.025	-11.511***	-.265	-.341	.020	-13.519***
→ 문제행동	.287	.373	.022	13.266***	.170	.246	.019	9.051***
외모지향태도 → 자아존중감	.136	.106	.032	4.245***	.003	.002	.025	0.105
→ 문제행동	.345	.323	.028	12.280***	.241	.255	.025	9.797***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035	-.042	.016	-2.130*	-.113	-.126	.019	-5.788***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차이를 [표 10]에서 살펴보면, 심리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학생($\beta = -.341$)과 초등학생($\beta = -.30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심리적 불안감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등학생($\beta = .373$)이 중학생($\beta = .246$)에 비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등학생($\beta = .106$)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중학생($\beta = .00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모지향태도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초등학생($\beta = .323$)이 중학생($\beta = .255$)에 비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1$). 자아존중감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초등학생($\beta = -.042$)에 비해 중학생($\beta = -.126$)이 부(-)의 영향력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에 대한 경로는 [그림 4]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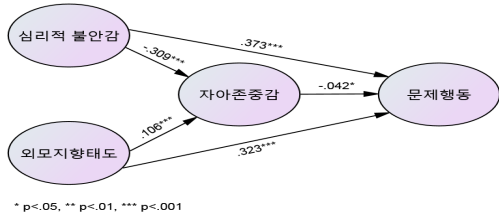


그림 4. 초등학생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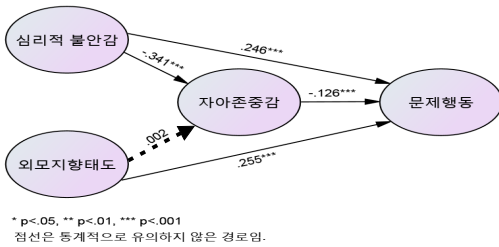


그림 5. 중학생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결과

한편 유의한 경로로 확인된 초등학생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중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초등학생($\beta = .013$)은 $p < .05$ 수준에서, 중학생($\beta = .043$)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초등학생($\beta = -.004$)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효과를 보였지만 중학생($\beta = .000$)의 경우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학교급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초등학생			중학생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심리적 불안감 → 문제행동	.373**	.013*	.386**	.246**	.043**	.289**
심리적 불안감 →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	.013*	-	-	.043**	-
95% bootstrap C.I.	(.003 ~ .025)			(.027 ~ .058)		
외모지향태도 → 문제행동	.323**	-.004*	.319**	.255**	-	.255**
외모지향태도 →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	-.004*	-	-	.000	-
95% bootstrap C.I.	(-.010 ~ -.001)			(-.007 ~ .005)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042*	-	-.042*	-.126**	-	-.126**

* $p < .05$, ** $p < .01$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임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외모지향태도,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문제행동과 독립변수인 외모지향태도와 심리적 불안감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독립변수인 외모지향태도와 심리적 불안감은 모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은 외모지향태도와 심리적 불안감과는 반비례의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약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모지향태도가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은 강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의 수준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간접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정적 매개효과를, 외모지향적 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적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80-82].

넷째, 청소년의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의 영향력 크기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이 부적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고, 심리적 불안감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강했다.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은 유의하였으나 여학생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어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지향태도에서 문제행동, 자아존중감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한 경로가 확인된 성별에 대한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결과, 심리적불안감과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반면, 외모지향적 태도와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남학생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급별 매개효과 차이 결과 또한 비제약모델과 등가제약모델의 카이제곱 값 차이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급별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강하게,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급별 간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은 유의하였으나 중학생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외모지향태도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부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의한 경로가 확인된 학교급별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결과, 심리적불안

감과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초·중등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외모지향적 태도와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초등학생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오늘날 크게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적인 태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논의 및 함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발생빈도나 최초 발생시기만의 초점화, 비행 및 범죄 형태에 관심을 두었을 뿐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청소년기 고유의 특징인 외모에 대한 극도한 관심에서 나타나는 외모지향태도를 관련 변인으로 포함함으로써 심리적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때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날로 다양해지고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나 폭넓은 원인규명이나 관련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저연령층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문제행동의 원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조기에 형성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외모지향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다면적인 모형을 제시하

었다는데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심리적인 불안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완화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하며, 다양한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불안감 완화 및 해소 방안으로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및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직접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은 실천적 접근에 있어 심리적 불안감 감소와 외모지향태도를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안이 아닌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소시켜주고,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 및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적인 프로그램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주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남녀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심리적불안감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 완화를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한편,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남학생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자아존중감을 통한 문제행동 감소 전략보다는 긍정적인 외모지향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외모인식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사하는 것이나 이는 청소년의 외모지향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이므로 보다 거시적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외모지향태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소중하며, 외모보다는 내면적인 성숙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가족, 학교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며, 특히 마스크의 영향이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만큼 각종 연예 프로그램 또는 선전에서 내면적 가치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학교급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심리적불안감 및 외모지향적 태도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심리적불안감과 문제행동과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문제행동 완화를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한편,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초등학생에게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경우 기초교육으로 문제행동에 완화 및 예방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고양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 외모지향태도에 대한 접근이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1] 황정규, “한국 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대논총, 제4권, pp.3-29, 1990.
-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 [3]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 2012.
- [4] 교육부 보도자료, 2013.09.23-2013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013.
- [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년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 2012.
- [6] 강현아,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35권, pp.145-165, 2007.
- [7] 김상수, “청소년 여가와 비행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제2권, pp.22-42, 2000.
- [8] 김지연,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9] B. Lahey, M. Schwab-Stone, S. Goodman, I. Waldman, G. Canino, P. Rathouz, T. Miller, K. Dennis, H. Bird, and P. Jensen,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oppositional behavior and conduct problems: A cross-sectional household

- study of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9, No.3, pp.488-503, 2008.
- [10] 박소현, 김순옥,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4권, 제6호, pp.95-116, 2006.
- [11] 남소현, 김영희,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현적, 내면적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10호, pp.199-213, 2000.
- [12] 오영진, *청소년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과정적 변화와 유형화 예측변인*,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3] 한현아, 도현심, "가정의 위협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9권, 제1호, pp.87-111, 2008.
- [14] 허은경, 이경님,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1호, pp.111-122, 2006.
- [15] 김은경, "일반학생의 성공적인 초등학교생활 적용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교사의 인식," 특수아동연구, 제10권, 제1호, pp.23-51, 2008.
- [16] 정미영, 문혁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제28권, 제5호, pp.37-54, 2007.
- [17] 최옥희,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18] J. Wolff and T. Ollendick,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Vol.9, pp.201-220, 2006.
- [19] 조주영, 오인수,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변화 및 정서문제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 pp.301-323, 2014.
- [20] P. Lambert, K. Prandy, and M. Bergman,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in occupation based social classification & paper," presented at 1st Meeting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Barcelona, pp.18-22, July 2005.
- [21] J. Neslon, S. Stage, K. Duppong-Hurley, K. L. Synhorst, and M. Epstein, "Risk factors predictive of the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at risk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Vol.73, No.3, pp.367-379, 2007.
- [22] T. Achenbach,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Psychiatry, pp.4-18, 1991.
- [23] 이경혜,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행동장애 출현율," 정서·학습장애연구, 제1권, 제2호, pp.93-116, 2001.
- [24] 장영숙, 조정애,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기질과의 관계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7권, 제2호, pp.97-119, 2000.
- [25] 김희화,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9호, pp.47-61, 2002.
- [26] M. Rosenberg, C. Schooler, and C. Schoenbach,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4, No.6, pp.1004-1018, 1989.
- [27] 최미진, *소년경찰제도 및 역할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8] 이경은, 이주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과정적, 아동과 권리, 제12권, 제4호, pp.503-523, 2009.
- [29] 장희순, "청소년의 신체상과 성형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7.
- [30] 민동일,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31] 김정선, *자기 대상화가 신체경험, 우울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2] 서혜석,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33] 강지영,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4*,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34] A. Kauffman, "A test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d validation and reliability of related measures," Ph. D.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1993.
- [35] 홍경자, *초등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36] 김은희, *소년의 종교성향과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37] 김진화, 송병국, 고운미, 이채식, 김창욱, 임형백, 이창식, 김경중, 김진호, 권일남, 양승춘, *청소년 문제행동론*, 학지사, 2002.
- [38] M. Moore, "Psychologic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Social Science Research*, Vol.34, No.2, pp.357-383, 2011.
- [39] 박상은, 김준경, "애착, 비공식낙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 제10권, 제1호, pp.77-95, 2013.
- [40] 김지혜,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제24권, pp.31-59, 2013.
- [41]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2호, pp.121-148, 2011.
- [42] 강혜원, 김영희, "생의 의미수준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제5권, 제2호, pp.27-50, 2011.
- [43] 김재엽, 남보영, "신체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pp.169-191, 2012.
- [44] 이승희,곽수란, 장은옥,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6권, 제4호, pp.23-42, 2010.
- [45] 심은실, 김예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외현적-내면적 문제행동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제24권, 제4호, pp.97-119, 2011.
- [46] 김종인, *골프경기 시 심리적 불안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47] C. Spielberger, *Anxiety and behavior*, New York, NY :Academic Pres, 1996.
- [48] D. Landers, "Arousal-performance relationship revisited.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s*," Vol.51, No.1, 1980.
- [49] R. Singer, *Motor Learning and Human Performance (3r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0.
- [50]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의복에 따른 외모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예술논집*, 제24권, pp.203-220, 2001.
- [51] 고애란, 김양진,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한국의를학회지*, 제20권, 제4호, pp.667-681, 1996.
- [52] 남윤자, 박재경,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를학회지*, 제23권, 제8호, pp.1149-1160, 1999.
- [53] S. Durkin and S. Paxton, *Body Dissatisfaction, Dating, and Importance of Thinness to Attractiveness in Adolescent Girls*, 2002.
- [54]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2008.
- [55] R. Rapee and L. Melville, "Recall of family factors in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Comparison of mother and offspring reports," *Depression and Anxiety* Vol.5, No.1, pp.7-11, 1997.
- [56]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 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효과와 성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3호, pp.491-510, 2004.
- [57] 조성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58] 이성식, "낮은 자기 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 비행의 영향; 청소년 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 년연구, 제18권, 제2호, pp.159-181, 2011.
- [59] 민원홍, 보호관찰대상 비행 청소년의 제 비행에 대한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60] 한창환,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 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61] 문충환, 성격적 상담의 입장에서 보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62] J. Rottenberg, J. Gross, and I. Gotlib, "Emotion context insensitiv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05.
- [63] 박원희,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64] 김태운, 태권도수련 참여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65] 고애란, 심정은,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의식과 신체태도 및 체중조절행동의 영향 연구," *생활과학논총*, pp.15-29, 1997.
- [66] C. Nichter, M. Ritenbaugh, M. Nichter, N. Vuckovic, and M. Aickin, Dieting and "watch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 females: Report of a multimethod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17, pp.153-162, 1995.
- [67] 추영미,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68] T. Cash, D. Cash, and J. Butters, "Mirror, Mirror, on the Wall? : contrast effects and self-evaluations of physic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9, No.3, pp.351-358, 1983.
- [69] S. Harter,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an (Eds), *Competence consider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 [70] T. Cash and B. Winstead, "The grant American shape-up: Body image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Vol.20, No.4, pp.30-37, 1986.
- [71] 한준상, 이춘화, 윤옥경,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 [72] 류은정, 김영희, "남자 대학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과 동기," *대한가정학회지*, 제46권, 제1호, pp.63-72, 2008.
- [73] O. Kim, and K Kim, "Body weight,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Korean Females," *Adolescence*, Vol.36, pp.315-322, 2001.
- [74] 박혜인, *지역사회 청소년에서 체중과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75] 최영주,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76] 박연식, *남자 중·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 및 인식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77] 서미경,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78] 한상철, 김관희,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자정능력 향상방안: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제31권, pp.121-145, 2012.
- [79]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80] 이시연,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759-771,

2014.

[81] 박은미,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327-339, 2015.

[82] 박현춘, 최효진, 윤희영, 권영대, 노진원, “북한 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pp.225-235, 2015.

저자 소개

박 선 태(Seon-Tae Park)

정회원



- 2016년 2월 :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성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조직,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임 성 옥(Sung-Ok Lim)

정회원



- 1992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3년 8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조사